

ELISE BERTRAND' VIOLIN

작곡가의 악기

엘리제 베르트랑의 바이올린



르노 카뮈송이 연주하는 엘리제 베르트랑의
Sonate-Poème, Op.11

무엇보다도 남녀평등을 외치는 프랑스에서 여성 작곡가들에게 오늘날의 자유와 활동이 허락되기까지는 사실 많은 여성들의 희생, 노력, 그리고 투쟁을 필요로 했다. 어쩌면 음악 애호가들에게조차도 낯선 이름들일지 모르지만, 루이즈 파랑크, 멜 보니스, 엘렌 드 몽주르 등의 여성 작곡가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저 피아노 교사의 신분에만 만족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프랑스 음악 역사도 이들을 작곡가라고 기억하는 대신에 피아니스트로만 기억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루이즈 파랑크의 교향곡들이 연주되기 시작한 것이 프랑스에서도 불과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오페라 작품들은 남성들에 의해서 작곡되었지만, 이제는 여성 작곡가들도 오페라를 작곡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생각보다도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 싸움이었다.

21세기를 여는 첫 해인 2000년, 여름 햇살이 뜨거운 프랑스 남부 툴롱에서 태어난 엘리제 베르트랑은 오늘날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드물게 연주와 작곡을 모두 병행하고 있는 음악가이다. 피아노를 먼저 배우기 시작하고,

이어서 바이올린을 배운 그녀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자신의 작품들 가운데 피아노를 위한 작품 혹은 피아노가 들어가는 작품들을 스스로 연주, 녹음할 정도로 피아노 연주 실력 또한 뛰어나다. 그녀가 작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즉흥연주를 통해서였다. 피아노 시험을 위해 바흐의 3성부 신포니아를 준비하면서, 곡을 암보하고, 암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것에 지친 그녀는 바흐의 곡을 바탕으로 즉흥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즉흥연주의 재미를 느꼈다. 그녀는 즉흥연주를 계속 했고, 나중에는 바흐의 흔적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연주에 도달했다. 그녀는 이를 탐구하며 작곡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했다. 작은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변주시키고, 변형하는 것을 통해서 작곡에 접근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에서 커다란 기쁨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즉흥연주를 통해서 태어난 소품들을 악보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작곡에 다가갔다.

14세 때에 그녀는 프랑스에는 익히 알려져 있는 작곡가 니콜라 바크리를 만났다. 자신이 작곡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바크리에게 말한 것이다. 엘리즈 베르트랑은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베르트랑의 작품들을 들어본 바크리는 그녀가 쓴 곡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격려해 주었다. 베르트랑은 최근까지도 바크리의 조언을 들으면 작곡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는 교류에 더 가깝다.

베르트랑은 아직은 작곡가로서의 활동보다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활동이 더 많다. 그녀의 작곡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작곡을 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는 것을 일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작곡은 반드시 어떤 영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녀는 잘 알고 있다. 때로는 이전에 들은 어떤 음악이 작곡을 하게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영감은 자신이 작곡을 위해 다루고 있는 주제와 동기에서 찾게 된다고 말한다. 한번은 장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때가 있어서 버스 안에서 곡을 한 곡 완성하게 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인 엘리즈 베르트랑은 현악기를 위해서 이미 다수의 작품들을 작곡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간지 「르 피가로」에서 이미 수 년 전에 베르트랑을 주목해야 하는 작곡가로서 선정하고,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녀는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언어는 이미 상당한 스타일과 자신감을 확보한 상태이다. 또한 프랑스 음악의 색채와 그 흐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기도 하다. 그녀의 작품들 속에 흐르는 서정성은 분명히 프랑스적인 색채이다.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신포니에타, Op.13’은 지휘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장-자크 칸토로프에게 헌정된 작품이다. 엘리즈 베르트랑은 이 작품에서 음정관계가 빛내는 색채,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심리적인 환기를 시키는지를 이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작곡가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



다. 그녀가 머지않아 더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들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작곡가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깨닫게 해 준다. 프랑스의 캉피스 피아노 콩쿠르는 그녀에게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콩쿠르를 위해서 위촉하기도 했다. 그녀가 작곡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시, Op.11’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뤼송의 연주로 엑상 프로방스 페스티벌에서 올해 초연되었다.

엘리즈 베르트랑은 우리 시대에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뚜렷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여성 작곡가라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이미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한 경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녀는 콩쿠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녀는 콩쿠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말한다. 젊은 연주자들이 모두 작곡을 하도록 격려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오늘날 엘리즈 베르트랑처럼 연주와 작곡을 모두 병행하고 있는 이들은 극히 소수이다. 작곡이 과연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연습을 하는 연주처럼 습관이 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 인지는 아무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작곡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악보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의미가 담긴 연주를 높이 평가하는 시대는 어쩌면 엘리즈 베르트랑처럼 창의적인 열의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다.

글 | 김동준(새봄음악평론가)